

철도경찰, 1천 4백만원 귀금속 횡령범 검거

- 피해자가 하차하며 놓고 내린 귀금속… CCTV 등 데이터 분석 토대 검거

- 국토교통부 서울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는 8월 21일 다른 사람이 전동차에서 놓고 내린 귀금속이 든 종이 쇼핑백을 횡령한 A씨(남, 60대)를 점유이탈물횡령죄 혐의로 입건하여 수사* 중에 있다고 밝혔다.

* (사건개요) 8. 10. 14:40경, 동인천행 특급열차 내 객실에서 발생한 귀금속 점유이탈횡령범을 8. 16. 검거

- A씨는 쇼핑백을 발견하고, 본인이 소지한 검정 비닐봉지에 넣어 다이아몬드, 순금 반지 등 시가 1천 4백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.

- 철도경찰은 전동차에 설치된 CCTV(코레일 구로차량사업소) 영상을 통해 범행을 확인 후 A씨가 사용한 교통카드 정보와 인근 CCTV 영상을 분석하여 피의자를 특정하고 A씨의 행적을 추적하여 검거하였다.

- 한편, A씨는 철도경찰대에 출석하여 범행사실을 일체 부인하였으나, A씨가 횡령한 순금 반지를 착용하고 있는 것을 발견한 철도경찰이 반지의 구입시기 등을 추궁하자 범행사실 일체를 자백하였다.

- 서울지방철도경찰대 박한신 수사과장은 귀중품이 든 소지품 등을 전동차에 종종 놓고 내리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데 “철도 이용객들의 귀중품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”하다고 강조하면서,

- “최근 전동열차 내에 범죄예방용 CCTV가 설치되어 있으니, 다른 사람이 두고 내린 물품 등을 발견할 경우에는 함부로 가져가지 말고 인근 역무실 또는 철도경찰(☎ 1588-7722)에 신고해 줄 것”을 당부하였다.

담당 부서	철도특별사법경찰대 기획과	책임자	과 장	송창용	(042-615-5863)
		담당자	계 장	안승용	(042-615-5864)
<공동>	서울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 부평센터	책임자	센터장	이효기	(032-514-9332)
		담당자	수사관	조충현	(032-514-9332)

